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영광군, '2018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 전개



영광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에 참석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예산담당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및 홍보 진단지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를 전개하였다. 또한 12일에는 영광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센터 구축 견학차 경남 창원과 진

주를 방문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제품설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엑스포 붐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기관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엑스포 개최 대형 현수막을 걸치고 어머니 노래교실, 치매예방 교실 운영 등 다종이 모이는 프로그램의 현장을 찾아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군 관계자는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영광대마산업단지 일원에서 '즐거라 e-모빌리티, 누리라 eoo life'라는 슬로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영광군, KA TECH(자동차부품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보건소, 등골길 감염병 예방 캠페인 실시

함평군보건소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등골길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단체생활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결핵, 홍역, 수두 등 호흡기 감염병과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홍보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휴대용 손소독제를 배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신안군, '인권침해 제로화 섬' 추진

천사섬 신안군에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영진, 양식장,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침해로 인한 범죄가 없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안군에서는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신안 섬 마을 수상한 혼인신고'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마치 지금 현재 신안군에서 벌어져 인권침해 사건으로 곡해 돼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인권침해 취약 분야 사업장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행정적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2014년도 2월 신안군에서 열린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안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와 사후 예방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신안군에서는 당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워터 제공 등 복지지원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제도적으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복지담당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영진 등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량 군수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을 더욱 보완시켜 천사섬 신안에서는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 하지 않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장성군립중앙도서관' 13년 만에 대대적 변신

내달부터 리모델링 시작...시설 현대화·공간 효율성 up



2005년 개관해 13년간 장성군민들의 문화 요람 역할을 해 온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 대대적인 변신에 들어간다.

장성군은 시설이 노후되고 도서 저장 포화 상태에 이른 중앙도서관 내부 공간을 이용자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대규모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계획에 따르면 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1층은 어린이도서관 전용 공간으로 바뀐다. 이곳에는 별집모양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독서 공간과 놀이개념을 접목한 유아코너, 동화방 등이 들어서 가족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된다. 2층은 종합자료실과 문학실이, 3층은 문화교실과 각종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꾸며진다. 2층에 있는 사무실도 1층으로 옮겨 방문객들에게 발 빠른 안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중앙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에 조성돼 있다. 개관 당시 장성군의 과감한 투자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춰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금은 8,055명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해 하루 평균 263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매년 보유하는 신간 도서가 늘어나면서 열람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힘들었다.

장성군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 비치 최대 수량을 현재 19만권에서 25만권으로 늘리고, 노후된 시설과 장비 등을 새롭게 교체해 오는 12월까지 쾌적한 도서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의 대표 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이 개관 13년 만에 리모델링을 한다"며 "공사 기간에도 도서 대출 서비스는 계속 진행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부권에 삼계도서관, 북부권에 북이도서관을 운영중이다. 두 도서관은 한옥으로 지어져 외관이 아름답고, 도서 대출 기능 뿐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진원면과 삼서도리빌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의 접근이 쉽고 한층 밀착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성군, 꿈! Job Go! 별꿈·달꿈 진로콘서트 개최

진로 멘토와 함께 학생들 꿈과 재능 찾는 시간 가져

보성군은 지난 1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꿈! Job Go! 별꿈·달꿈 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진로콘서트는 보성군청소년수련원·보성진로체험지원센터(일장 박형호) 주관으로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진로 멘토와 함께 직업 세계 이해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보성소아과방의 관소리, 민요공연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129팀의 낭독공연, 가수 율라리세션의 멤버인 최도원과 하준석, 작곡가 이지우 등 진로 멘토들의 공연 및 진로직업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진로콘

서트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꿈과 재능을 찾는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능력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개발·제공으로 미래주요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직무교육 실시



구례군은 지난 17일 주택가격조사에서 지방세담당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강

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했으며, 교육 후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당하며 역사시대의 자세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김승호 구례군수는 "공무원 스스로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어려운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